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64 Tel. 02-765-3011-3

12

2016 | Vol. 541

롯데기 · 게이키자카 일루미네이션(六本木 · けやき坂イルミネーション)

Photo : Kazuhisa Ishikawa

2016년도 추계 외국인 서훈

지난 11월 3일(목) 일본 내각부에서 '2016년도 추계 외국인 서훈' 대상자를 발표했으며,
한국에서는 6명이 각각 욱일대수장, 욱일쌍광장, 서보쌍광장을 받는다.

1. 한승주(韓昇洲, 남, 76세)

전 외무부 장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서울국제포럼 명예회장

- 공로 개요 : 일본 · 대한민국 간의 관계강화 및 우호친선에 기여
- 훈장 :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

2. 이건호(李健鎬, 남, 77세)

현 주한일본인 사망자 위령제 주최자, 현 (사)한국차인연합회 상임이사, 고문

- 공로 개요 : 일본 · 대한민국 간의 우호친선 및 상호이해의 촉진에 기여
- 훈장 : 욱일쌍광장(旭日双光章)

3. 이병직(李秉稷, 남, 91세)

현 울산광역시 한일친선협회 회장

- 공로 개요 : 일본 · 대한민국 간의 우호친선 및 상호이해의 촉진에 기여
- 훈장 : 욱일쌍광장(旭日双光章)

4. 홍명표(洪明杓, 남, 76세)

전 제주도관광협회 회장

전 서귀포시관광협회 회장

- 공로 개요 : 일본 · 대한민국 간의 우호친선 및 상호이해의 촉진에 기여
- 훈장 : 욱일쌍광장(旭日双光章)

5. 김경희(金慶姬, 여, 65세)

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직원

- 공로 개요 : 일본국 재외공관 활동에 기여
- 훈장 : 서보쌍광장(瑞宝双光章)

6. 차성숙(車聖淑, 여, 67세)

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직원

- 공로 개요 : 일본국 재외공관 활동에 기여
- 훈장 : 서보쌍광장(瑞宝双光章)





아오모리 항의 야경

아오모리 시와 평택 시

아오모리 시

아오모리 시(青森市)는 혼슈(本州) 최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 현(青森県)의 현청 소재지다. 인구는 29만 명이 넘으며, 북으로는 무쓰완(陸奥灣) 만에 면해 있고, 남으로는 핫코다(八甲田) 연봉이 펼쳐지는 풍요로운 자연과 가리비, 해삼 등의 해산물, 사과, 카시스 등의 농산물 자원이 풍부하다.

또 세계 유수의 대설지대로 유명하여, 겨울철 핫코다(八甲田)에서는 스키와 스노보드는 물론 수빙(樹氷)도 감상할 수 있다. 매년 8월 2~7일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축제 ‘아오모리 네부타 마쓰리(青森ねぶた祭)’가 개최되어, 아오모리 시민은 물론 일본 국내외에서 이곳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세계유산등재를 추진 중인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三内丸山遺跡)’을 비롯해 조몬(縄文) 유적과 세계적인 판화가 무나카타 시코(棟方志功)의 작품을 다수 소장, 전시하는 ‘무나카타 시코 기념관’, 아사무시(浅虫) 지구와 스카유(酸ヶ湯)를 비롯한 온천지 등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네부타 마쓰리에 참가한 아오모리와 평택 시장(2015년 8월 당시)



네부타 마쓰리

아오모리 시는 예로부터 혼슈(本州)와 홋카이도(北海道)를 잇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서 번성했다. 지금은,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 항로를 가진 아오모리 공항을 비롯하여 도호쿠·홋카이도 신칸센(東北・北海道新幹線)의 정차역인 신아오모리 역(新青森駅), 해마다 많은 크루즈 여객선이 기항하는 아오모리 항 등, 육해공의 교통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일본의 주요 도시 및 세계를 연결하는 도호쿠 지방의 관문으로서 매력을 지닌 도시다.

평택 시와의 관계

(1) 협정 체결 과정

1994년 3월 (재)자치체국제화협회를 통해 당시의 송탄 시와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후, 상호 방문과 두 시의 아동이 그린 회화·판화 등의 작품 교류, 두 시의 미술전에 상호 출품하는 등 교류하는 가운데 협정 체결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교육·문화 등의 우호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수빙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핫코다 지고쿠누마의 단풍



평택 시 방문 중 부시장님 예방



대학생 교류

1995년, 송탄 시가 평택 시와 통합된 뒤에도 두 시의 교류는 계속되었고, 같은 해 8월 평택 시와 아오모리 시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 서로 영원한 우호 관계를 다짐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주요 교류 사업

매년, 두 시의 중학생이 상호 방문하는 형식으로 교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의 도시에서 전통 문화나 홈스테이 체험, 교류회 등 아오모리 시와 평택 시의 우호를 깊어질 젊은이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두 시 및 양국의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 관계의 진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매년 1명씩, 아오모리공립대학으로 유학생을 보내고 있으며,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각종 교류 사업에 종사하며 두 시의 교류를 더욱 증진하는 가교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오모리공립대학 학생이 평택 시로 초청되어 평택대학교 일본어과 학생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또 전통악기 '해금' 연주 체험과 평택 시 예절관에서 전통 의상 체험, 평택 시내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많은 평택 시민과 교류하며, 우호 도시 간의 친분을 다졌다.

우호도시 20주년 기념사업

작년은 아오모리 시와 평택 시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지 2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였다.

그 기념사업으로서 '아오모리 네부타 마쓰리'와 '평택항 마

라톤'의 개최에 맞춰, 상호 방문해 두 시의 우호 교류를 널리 홍보하는 한편, 아오모리 시에서는 평택 시 유학생이 주축이 되어 '평택 시 페어'를 개최하고, 사진전 및 평택이 발상지인 '부대찌개'를 소개하여 많은 아오모리 시민들로 붐볐다.

민간 단체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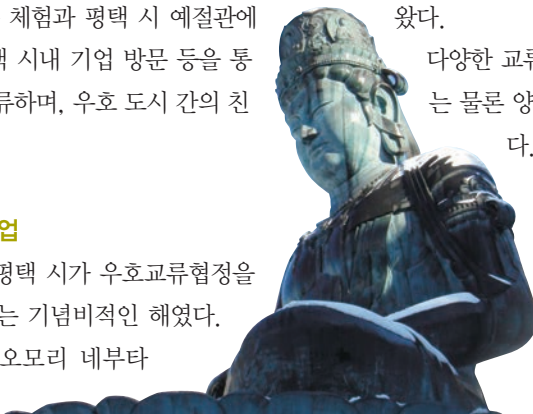
민간 단체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캠프 등의 청소년 교류를 비롯해, 두 시의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의 스포츠 교류, '평택농악'과 '사물놀이' 등의 문화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두 시와 일한 양국의 우호 친선을 기원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우호 교류 전망

아오모리 시와 평택 시의 교류는 두 시의 시민,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단체, 아오모리공립대학의 평택 시 유학생 등 많은 분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지속, 발전해 왔다.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두 시는 물론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평택 시를 비롯해, 교류를 뒷받침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여러분과 협력하면서, 두 시의 우호 교류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가겠다.

(집필: 아오모리 시, 협력: CLAIR, Seoul)



일본 관광 열차의 거장 미토오카 에이지



관광 열차의 거장 미토오카 에이지(水戸岡鋭治) 씨의 패널 전시회가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10월 27일에는 ‘디자인은 공공을 위하여’라는 토크쇼가 우송대학교 이용상 교수(전 한국철도학회 회장)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미토오카 에이지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광열차 디자인 중에 생긴 에피소드와 여기에 담긴 마음가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에 한국에서 패널 전시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신 소감은 어떤가요.

강연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 분들은 일본인과 달리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꿈을 쫓는 마음가짐이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강연회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이나 감동했던 경험에서 나온다. 어린이들에게 여행을 통한 감동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경험은 미래의 새로운 디자인과 제품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디자인할 때,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을 디자인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은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떠올려 디자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즉, 여행은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습니다.

今回、韓国でのパネル展示会や講演会のご感想を教えてください。

講演会でのやりとりを通じ、韓国の方は日本人とは異なる熱い気持ちを持っていると思いました。「世の中を豊かにしたい」、「そのためには何か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った夢を追いかける思いが強いと感じました。

今回の講演会で、「デザインのアイデアは感動した体験から得ている。子供たちに旅行を通じた感動の体験を提供できれば、その経験は未来の新しいデザインや製品に繋がっていくはずだ」とお話しされましたが、そのように考える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ありますか。

デザインをする際、自分が体験したことないものをデザイン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と思ったのがきっかけです。一方、自ら体験したものは、思い出が残っているためデザインする時に比較的簡単に生かせます。旅をした人は誰でも思い出を持っているので、旅の経験を思い出してデザインすることは難しくありま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감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린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이상에 가까운 최고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은 그 속에서 다양한 것을 향유하고 미래의 새로운 디자인과 제품으로 이어지는 바탕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JR규슈를 중심으로 관광열차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구자인 미토오카 씨가 디자인한 열차는 이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열차'라는 발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자주 오해를 받는데, 저는 철도 마니아가 아니라 특별히 의식해서 관광열차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는데, 기존 여행은 차창 밖에 멋진 풍경이 영화처럼 흘러가도 사람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광의 일부인 이동 중의 경치도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열차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마을 전체를 관광자원화 하려면, 여러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만, 관광열차는 철도회사 사장만 결단을 내리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로 주변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관광열차를 완성하면, 주민들이 기뻐하며 열차를 이용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고장 것을 열차에서 팔아 응원하자', '선로 주변 가게도 예쁘게 꾸미고, 열차게 만들자'는 등 주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됩니다. 나아가, 지역의 평판이 좋아지면,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는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せん。つまり、旅は素晴らしいデザインに繋がるソフトになり得ます。そのため、様々な経験ができる環境を作ることが重要になります。人間は環境で育つ動物です。そのため、感動する体験を多くできる環境を子供たちに作ってあげることが大切です。大人が理想に近い最高の環境を提供することで、子供はその環境で色々なことを享受し、未来の新しいデザインや製品に繋がるベースとなるものを自然に学習できると思います。

日本ではJR九州を中心に観光列車がブームになっているようにも思われます。その先駆けとなった水戸岡様がデザインされた列車は、その地域の活性化に繋がっているように思えます。「観光列車」という着想はどこから生まれたのでしょうか。

よく誤解されがちですが、私は鉄道オタクではありませんので、特に意識して観光列車を作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ただ、子供の頃から旅が好きでした。従来の旅は、車窓から素敵な風景が映画のように流れているのに、人々はそれに気づかず、ただ「目的地まで移動するだけ」に止まっていた。そこで、観光の一部である移動中の景色も人々に楽しんでほしい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地域活性化の手段として、比較的ローコストで効果が高いのは列車のデザインであると考えます。例えば、最初から町全体を観光資源化しようとするとなかなか人を説得する必要がありますが、観光列車は鉄道会社の社長さえ決断をすれば作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そして、「沿線の人々に豊かな時間を過ごせる旅を提供したい」という思いを込めた観光列車が完成すると、沿線の人々は喜んで列車を利用します。そこから、「地元のを列車で売って応援しよう」「沿線の店も綺麗にし、充実させよう」などと、住民の意識が高くなるにつれ、地域はより活気づくようになります。さらに、地域の評判が良くなると、日本全国はもちろん、全世界からも人々が訪れる素晴らしい観光地にもなり得ます。





강연회에서 말씀하신 ‘나는 작가가 아니라 디자이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디자인한다’는 철학은, 처음 디자이너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갖고 계셨나요.

디자이너를 시작했던 젊은 시절은 모난 성격이었습니다. ‘내가 디자인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모양의 디자인이지만 사용하기 불편한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거나, 사람이 사용하기에 위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을 알려주세요.

제 경우는 스스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야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부탁 받아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다양한 것을 보고 느끼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내 아이디어를 명확히 해 두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젠가 삼대가 함께 열차로 여행할 수 있는 ‘가족 침대 열차’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열차에서 삼대가 단란한 시간을 보내다가, 한밤중 역에 도착하면 맛있는 야식을 먹으며, 누구나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침대 열차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講演会で話しされた「自分は作家ではなくデザイナーである。自分の思いを表現するのではなく、利用者の思いを考えてデザインする」という哲学は、デザイナーを始められた当初から持っていたものでしょうか。

デザイナーを始めた若かり頃は、性格が尖っていました。「自分がデザインするものは凄いものだ」と思っていたので「形は面白いが使い勝手が悪いもの」を作ることもありました。後々、多額のメンテナンスが必要となったり、人が使うには危険な場合もありましたね。

今後の目標や計画など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私の場合、自分から仕事を作るのではなく、誰かに頼まれてこそ仕事生まれるため、基本的に計画は持っていません。但し、どのような仕事を頼まれても対応できるよう、常に色々なものを見て感じたり、たくさんの人と会話することで、自分のアイディアを明確にしておく努力はしています。個人的には、いつか3世代が一緒に列車で旅が出来るファミリー寝台列車を作ることが夢です。列車で3世代が団らんする時間を過ごし、夜中に駅に着いたらおいしい夜食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ような無礼講の旅を体験できる寝台列車を提供したいです。



미스미니시코 항

구마모토 현 우키 시

규슈(九州) 지역의 중앙인 구마모토 현(熊本県) 중부에 위치한 우키 시(宇城市)는, 규슈의 경제대동맥인 국도 3호와 서쪽의 아마쿠사 시(天草市)에서 동쪽 미야자키 현(宮崎県)으로 이어지는 교차점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아름다운 전원 풍경, 시라누이카이(不知火海-야쓰시로카이(八代海)라고도 한다)의 바다가 그려내는 자연 경관과 도시 기능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지역이다.

2005년 1월, 우키 시는 미스미 정(三角町), 시라누히 정(不知火町), 마쓰바세 정(松橋町) 오가와 정(小川町), 도요노 정(豊野町) 등 5개 정(정)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독특한 풍토에서 나는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한 이 지역에는, 다수의 패총과 고분 유적, 시라누이 전설 등의 고대문화, 고성 터와 메이지(明治) 근대화 산업유산, 시라카베도조군(白壁土蔵群, 에도시대부터 지어진 흰 벽 창고 밀집지역)과 선착장이 자아내는 거리 풍경 등 중세에서 근대까지의 문화가 짙게 남아있다. 사람이 구축한 생활 문화 경관



도바세지마 섬 '꽃의 학교' 양란 하우스



시라누히 정 · 마쓰아이 시라카베도조군

과 자연이 빚어낸 낭만이 가득한 우키 시의 매력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한다.

우키 시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15년 7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 · 제강, 조선, 석탄산업’의 구성자산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미스미니시코(三角西港) 항이다.

1887년에 개항한 미스미니시코 항은 미야기(宮城), 후쿠이(福井) 항과 더불어 ‘메이지(明治)시대 3대 축항(築港)’으로 불리며, 일본 국내외의 무역 거점으로 번성했다. 길이 756m에 이르는 석축 부두는 네덜란드인 물드로가 설계한 것으로 당시의 최신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이처럼 당시의 시설이 거의 원형 그대로 현존하는 곳은 일본에서도 이곳뿐이다.

또 수많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작품의 무대가 되기도 했는데, 특히 메이지 시대의 문호인 고이즈미 야쿠모(小泉八雲)의 소설 ‘여름 날의 꿈(夏の日の夢)’이 유명하다.

최근에는 2008년과 2009년 NHK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에, 2013년 영화 ‘바람의 검심 교토 대화재편 · 전설의 최후편(るろうに剣心 京都大火編・伝説の最期編)’에 등장했다. 구(舊) 미스미 간이재판소 방향으로 가다 언덕 위 전망대에 오르면 미스미니시코 항의 전경과 아마쿠사 시 사이에 놓인 제1호 다리 텐몬교(天門橋)의 웅대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미스미니시코 항의 역사적 가치와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가이드도 있으니, 그 역사적 배경에 귀 기울이며 미스미니시코 항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좋겠다.

또 나선 길에 들렀으면 하는 곳이 미스미니시코 항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도바세지마 섬(戸馳島)’이다. 도바세지마는 1,200여 명이 거주하는 둘레 약 15km의 작은 섬이다.

이 섬에서는 서양란 생산이 매우 활발해 일본 최대의 출하량을 자랑한다. 2016년 4월에 양란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꽃의 학교(花のがっこう)’를 새로 개장했다. 이곳은 복합시설로 ‘난 하우스’ 견학 후,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린 인테리어 체험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곳은 옆 마을 ‘시라누히 정’이다. ‘도깨비 불’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마을인데, 매년 음력 팔월 초하루가 되면 시라누이카이 바다에 ‘불가사의한 도깨비불’이 나타난다. 고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게이코(景行) 천황이 규슈 순행 중 깜깜한 밤 시라누이카이 바다에서 이 도깨비불을 지표로 배를 저어 무사히 해안에 도착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구마모토 현을 ‘불의 나라



도요노 정 · 꽃감 커튼



시라누히 정 · 에이노 신사의 '우미노 히마쓰리'

(火の国)'라 부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이 전설로부터 매년 음력 팔월 초하루에 이 고장에서 '우미노 히마쓰리(海の火まつり)'를 개최하게 되었다. 도깨비불은 신기루 현상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이 신기한 현상을 보러 해마다 먼 곳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곳 시라누히 정 of 관광명소는 시라카베도조 창고의 흰 벽으로 대표되는 마쓰아이(松合) 지구의 거리 풍경이다. 이 지구는 거듭된 화재 피해의 역사를 보여주듯, 화재에 강한 하얀 회벽 창고 건물과 일명 '히요케미치(日除道)'라 불리는 차양 골목 등 당시 사람들의 지혜가 지금도 남아 있다. 그 중 오래 된 나마코가베(なまこ壁, 외벽에 네모진 평평한 기와를 붙이고, 그 이음매를 회반죽으로 불룩하게 바른 벽)가 이어지는 시오미자카(汐見坂) 언덕은 어부가 조수간만을 살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마쓰아이 정을 상징하는 풍경이다. 시라누히 정 of 신비한 매력이 사진으로도 전해지고 있지 않은가.

끝으로 우키 시의 특산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키

시는 '데코폰(デコボン, 한라봉)'의 발상지인데, 데코폰은 구마모토 현이 전 일본에 자랑하는 감귤류로서 그 당도는 감귤계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며, 비타민과 식물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미용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기가 많다. 우키 시에는 맛있는 과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산촌으로 둘러싸인 우키 시의 자랑인 과일 천국 '도요노정'에서는 당도 높은 포도와 배는 물론, 과즙이 가득한 감이 가을이면 오렌지색 꽃감커튼이 되어 마을 곳곳에 걸리는 풍경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오가와 정 of 생강, 아리아케카이 바다에 면한 미스미 · 시라누히 정에서는 신선하고 풍부한 어패류를 먹을 수 있다.

우키 시에는 이 외에도 매력적인 장소가 많으니, 멋진 추억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방문을 고대한다.

우키 시 관광정보사이트 '우키메구리(うきめぐり)'

www.city.uki.kumamoto.jp/kankou

TOBASEJIMA Dialy '오늘 이 섬에서(今日、この島で)'

<http://tobasejima.net>

(집필: 우키 시, 협력: CLAIR, Seoul)

모리

시원시원하게 탁 트인 넓은 공간 등 기존 이자카야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모리.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미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홍용택 대표와 윤여광 셰프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홍용택 대표 인터뷰

일본요리를 배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모리’를 경영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장르의 요식업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평소부터 일본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본 요리는 조리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맛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본식 맛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일본 요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나카무라 아카데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카무라 아카데미를 통해 일본 요리의 기본지식은 물론, 무엇보다 윤여광 셰프를 소개받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수강생과는 달리, 가게를 운영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세 번뿐이지만, 새벽까지 일 하다 아침 8시부터 요리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제게는 무척이나 고되고 힘든 하드 트레이닝이었죠.

가게를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큰 원칙은 ‘적절한 가격’입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이자카야는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저희 가게는 질적이나 양적으로도 만족할만한 음식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손님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원칙이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음식을 많은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많은 손님들께 큰 만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음식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모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중식당과 한식당을 운영했는데, 일본 음식은 정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조미료나 양념 맛이 깊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그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리하는 것이 일본 음식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본 음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일본의 맛을 구현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외식산업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미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담은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 제가 경영하고 있는 여러 업종의 가게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을 수 있는 브랜드 회사를 세우고 싶습니다.



윤여광 셰프 인터뷰

일본요리를 배우러 일본으로 유학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시작했고, 요리 학원에 다니며 일식을 배웠습니다. 군대를 제대하자, 일본 유학 길에 올라 처음에는 오사카의 일본어 학교를 2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후 지리적으로도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의 3대 요리 학교(후쿠오카 '나카무라 조리·제과 전문학교', 도쿄의 '핫토리 영양전문학교', 오사카 '쓰지 조리사전문학교') 중 하나인, 후쿠오카의 '나카무라 조리·제과 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다른 한국인들이 배우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초밥 집에서 수행을

썩았고, 방학 때는 미술랭 가이드에 실린 오사카의 가게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등 한국에서는 불가능했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은 요리사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본 음식은 분야도 다양하고 그 맛도 천차만별이지만, 최대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일본 음식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2017 신년일본문화소개전

일시 2017년 1월 10일(화)~21일(토)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후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02-765-3011(120,123)

*공연, 워크숍, 체험교실 예약방법 등 상세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확인.

■ 일본의 설 풍경전

설 장식과 소품 전시, 떡메치기, 에마걸기 체험 등 일본 설을 소개한다.

■ 우키요에 명작전(浮世絵名作展)

우키요에 최고 명작을 비롯해, 특별전시로 근대 우키요에 풍경화의 제인자 가와세 하스이(川瀬巴水)가 그린 조선풍경화 원본 4점이 전시된다.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워크숍 '어서오세요! 일본 차(茶)의 세계로'

NPO법인 일본차인스트럭처협회 선정 일본 차 대사 오가타 준코(尾形純子) 씨의 워크숍.

일시 1월 19일(목) 11:00, 15:00(각 회당 30명, 총60명)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 KANA & 리듬라이스의 흥겨운 다이도게(大道芸) 쇼

여성 솔로 다이도게 아티스트 카나(KANA)와 남성 듀엣 리듬라이스의 조인트 공연.

일시 1월 20일(금) 19:00 / 21일(토) 15: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 초등학교 일본문화체험교실

일시 1월 10일(화)부터 9회 실시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 일본영화상영회 겨울방학 특선 가족영화

일시 1월 6일(금)부터 11회 실시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2016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콘테스트(가나콘) 전시회

한국의 중고생 및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티브로 창작한 그래픽 디자인 콘테스트가 개최되었다. 중고생 부문 약 2500점, 대학생·일반인 부문에서 약 200점이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디자인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36점과 2015년도 수상작품 5점을 전시한다.

기간 12월 20일(화)~27일(화) 10:00~17:30(23일, 토, 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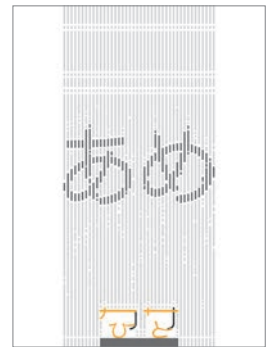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후원 돗토리현, 아키타현, (주)사일본어학원, INPAINTER GLOBAL, 일본자치제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문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가나콘 담당(02-397-2827)



코타츠(신예술 / 중고생)



비오는 날(박하림 / 대학·일반)

12월 일본영화상영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겨울영화 특선

한국에서 대히트를 기록한 다카쿠라 겐, 히로스에 료코 주연의 '철도원', 이와이 슌지 감독, 나카야마 미호 주연의 '러브레터'를 중심으로 한 걸작들을 소개한다. 유명한 명견 하치를 소재로 한 나카다이 다쓰야 주연의 1987년작 '하치 이야기', 사토 고이치, 이세야 유스케, 고이즈미 교코 주연의 가족드라마 '눈에게 바라는 것' 등 마음이 따뜻해지는 겨울영화 5편을 상영한다.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 **시간** 14:30(14:00부터 입장)

철도원 鉄道員ぼっぼや

일시 12월 16일(금)

하치이야기 ハチ公物語

일시 12월 21일(수)

러브레터 Love Letter

일시 12월 22일(목)

눈에게 바라는 것 雪に願うこと

일시 12월 9일(금), 27일(화)

대정전의 밤에 大停電の夜に

일시 12월 13일(화), 28(수)





후쿠오카에서 나고야까지, 일본을 달리는 히치하이커

박상예 · 일본문화원 리포터 2기

작년 여름, 부모님과 후쿠오카(福岡)로 3박 4일 여행을 갔다. 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하는 내게 4일간의 일정은 너무 짧지 않냐며 운을 떼셨고, ‘그렇죠 아버지! 전 조금 더 일본을 알고 싶어요’라며, 홀로 약 9일 정도 더 체류하기로 했다. 목적지는 귀국 일정과 예상 운임비가 적당한 나고야(名古屋)로 정했다. 당시 나고야는 ‘적당히 큰 도시’, ‘제 3의 도시’라는 이미지로 사실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바로 나고야로 갈 예정이었지만, 후쿠오카에 사는 친구가 오사카까지 ‘히치하이킹’으로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여행 경비도 아끼고, 여러 도시를 들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많은 사람과도 만날 수 있다니!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확실한 동기부여가 됐다. 국토대장정을 마친 직후라, 차를 못 잡으면 ‘걸어서라도 가자’라는 어마어마한 생각까지 했었다. 바로 가까운 관광안내센터에 들러 일본 전국 지도를 하나 구해서 계획을 짰다. 부끄러움도 처음뿐, 목적지 도시명을 커다랗게 종이에 적어서 기다렸는데, 의외로 5분도 안돼 차를 얻어 탈 수 있었다. 스마트 기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시적으로 일본어 지도와 영어 지도만 들고 했던 히치하이킹. 정말 재미있는 추억이 많다. 그 중에서도 야마구치현(山口県)

동남부에 위치한 슈난(周南)이라는 도시에서 히로시마(広島)까지 가며 만났던 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일본의 추석인 오봉(お盆)을 보내고 귀경하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낯선 차에 타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긴장하고 있는 내게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며,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에 내릴 때는 ‘한국과 일본은 친구’라며, 여행 경비에 보태라고 용돈까지 주셨다. 자동차를 태워주셨던 분들은 모두가 ‘氣をつけてください(조심해서 가세요)’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다. 기초적인 일본어 밖에 구사할 수 없었던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고, 배려심 많은 그 분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된다. 저렴하게 숙박하려 만화책도 보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체 ‘망가잇사(漫画喫茶)’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고, 하도 걷다 보니 오사카에 도착했을 즈음엔 신발이 달아서 중고 운동화를 구입해서 신기도 했다. 약 5번의 히치하이킹과 1번의 기차, 2번의 버스를 이용해 후쿠오카에서 교토(京都)까지 왔고,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아 교토에서 나고야까지는 신칸센(新幹線)을 탔다. 말도 통하지 않고, 휴대전화 없이 종이 지도 한 장만으로 했던 원시적인 히치하이킹이지만, 젊은 날의 좋은 추억이 되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세계 여행보다 인상적이었다.

2016 한일포토콘테스트 수상작품 발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방자치 단체, 기업, 행정기관과 함께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6 한일포토콘테스트’를 개최했다. 본 콘테스트는 한국 국적자는 ‘일본의 매력’을, 일본 국적자는 ‘한국의 매력’을 테마로 한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응모하여, 우수작품 응모자에게 공동주최 및 후원기관이 제공한 상품을 수여하고, 수상작품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전시하는 사업이다. 양국 국민이 사진을 통해 상대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문화·인적교류 촉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최된 본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지난해보다 3배 많은 약 3,600명의 응모자가 6,800여 점의 작품을 응모했다. 많은 응모작품 가운데 수상작품으로 선정된 28작품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전시된다. 수상작품 전시는 평일 10:00부터 17:30까지이며, 12월 3일(토)에 한해 15:00부터 17:30까지 관람 가능하다.



아키타현상(秋田県賞) 처음 만난 겨울왕국 / 김혜진



오키나와현상(沖縄県賞) 만자모의 석양 / 민혜진



나가사키현상(長崎県賞) 나가사키에서 피어오르는 꽃 / 정해민



아오모리현상(青森県賞)
꽃피는 봄이 오면! / 박근형



한국관광공사상(韓國觀光公社賞)
앞으로! / TAGUCHI TOMOE



한국관광공사상(韓國觀光公社賞)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야경 / IIZUKA SHINI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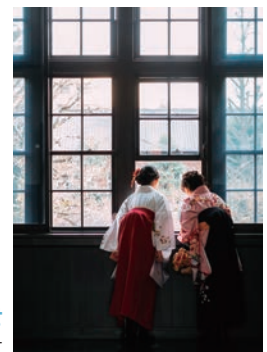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상(韓國觀光公社賞) WE ARE YOUNG! / NISHIKIORI SHUHEI



EPSON상 원숭이도 좋아하는 온천 / 이우현



Nikon상 등교길 / 손기현



Canon상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 황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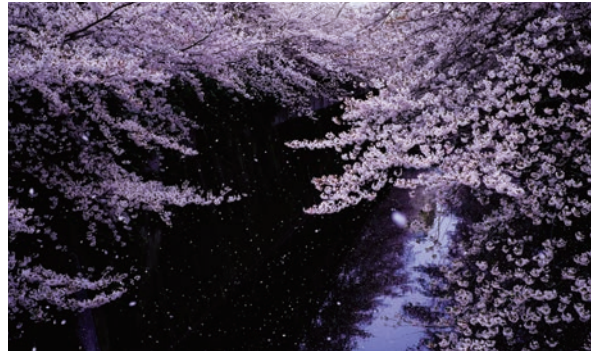
ANA상 두물머리 아침 / KIM AKIKO



JAL상 자연의 보고, 구시로 / 김석은



INTERPARK상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이지현



금호아시아나상(錦湖아시아나賞) 흠날리는 벚꽃 / 김지영



CLAIR상 시라카와고의 밤 / 손성주



INPAINTER GLOBAL상 늘 벚꽃이 있는 도시 / 송광찬



주한일본대사관상(在韓日本大使館賞) 도쿄의 메가네바시 / 정석원



주한일본대사관상
(在韓日本大使館賞)
호넨인 / 조현민



주한일본대사관상(在韓日本大使館賞) 이이오카 등대 / 윤상필



주한일본대사관상(在韓日本大使館賞) 도톤보리의 축제 / 김영준



특별상(特別賞) 요코하마의 노을 / 권기현



특별상(特別賞) 후지산의 밤 / 류시형



특별상(特別賞) 한여름의 판타지아 / 이지혜



특별상(特別賞) 친구 / 전찬우



특별상(特別賞) 해질녘의 교토 / 이상현



특별상(特別賞) 도쿄, 언제나 그곳에 / 최원석



특별상(特別賞) 구마모토성 / 정준희



특별상(特別賞) Shibuya, 여름의 거리 / 유인상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제작년 6월 말 더위가 시작되었을 무렵, 규슈관광 추진기구의 팸투어로 찾아가던 오이타현 다케타시의 분고 타케타. 이 팸투어의 미션은 일본의 시골 농가 민박체험과 규슈올레 오쿠분고(奥豊後) 코스를 걷는 것이었다.



다케타시는 일본 최고의 고령자 마을이며 어르신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농가민박도 주요 사업중에 하나다.



또 '일본 명수(名水)로 유명한데 6곳의 용수(湧水)는 전국으로 시판되고 있는 생수의 수원지로도 유명하다.



할아버지 댁 밭에는 옥수수가 다량으로 심어져 있었고 옥수수의 하얀 수염이 빨간수염으로 변하며 수확을 향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마치 자식자랑을 하시다 옥수수 자랑 삼매경.



할아버지댁 옥수수 찬사를 듣는 동안 내 눈은 위에 썩인 듯 옥수수 홀릭! 묘하게 빠져드는 이견 뭐지?~@o@



빨간 옥수수 수염이 말라 비틀어질 때가 옥수수 수확의 최적기인데 사나흘 후에 시작되는 옥수수 수확은 안타깝게도 절대부동.ㅠ 하여 나를 보시며 연신 한숨을 푹푹 내쉬시는 할아버지.



*매년 여름 옥수수 수확 철이 되면 나를 기다리시는 누군가가 계시다. (^-^)/

●계속● maidookini@naver.com